

왼속목정맥으로 투석 도관 삽관 후 발견된 지속성 원상대정맥

울산중앙병원 내과

정석희

Hemodialysis Catheterization Via Persistent Left Superior Vena Cava

Seuk-Hee Chung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Ulsan Central Hospital

서론: 혈액 투석을 위해 투석 도관을 삽입하는 경우, 흔히 오른속목정맥(internal jugular vein)을 통해 도관을 삽입한다. 그러나 오른속목정맥을 이용할 수 없어, 왼속목정맥으로 투석 도관을 삽입하고 확인된 지속성 원상대정맥을 발견하여 보고한다.

증례: 67세 남자 환자가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, 혈액 투석 도관을 삽입하는데, 환자의 우측 경부 중앙에 3 cm의 종괴가 있어 도관을 왼속목정맥에 삽입하였다. 도관이 흉추의 좌측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보여 흉부 전산단층촬영 등을 검사하였고, 도관이 지속성 원상대정맥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.

고찰: 지속성 원상대정맥은 흔한 기형이다. 대부분 무증상이나 소수에서 좌심방으로 연결되어, 우-좌 단락을 일으키고, 심기형을 동반할 수 있다. 도관이 흉추의 좌측면을 따라 주행한다면, 정맥 조영술, 흉부 전산단층촬영, 심초음파 등을 통해 어떤 정맥에 삽입되었는지, 동반된 심기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

지속성 원상대정맥으로 확인되고, 동반된 심기형이 없다면,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, 성공적으로 혈액 투석을 할 수도 있다. 따라서 즉시 도관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, 혈액 투석을 시도할 수 있다.

Key Words: 지속성 원상대정맥, 혈액투석, 도관

Persistent left SVC, Hemodialysis, Catheter